

# “영암서 살며 사람·문화·공동체 직접 경험해요”

군, 28일까지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체류형 프로그램…군서면 모정마을서 실제 생활·교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영암에서 직접 생활하며 귀농·귀촌과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는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는 영암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영암에 머물며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생활 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5기 참가자들은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간 군서면 모정리 ‘영암살

래’ 주택에서 생활한다. 영암살래는 단층 2동과 복층 3동 등 모두 5동으로, 냉장과 세탁기, TV, 인덕션, 전자레인지, 침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품을 갖추고 있다. 사용료는 단층 월 20만원, 복층 월 30만원이며 보증금 50만원과 공과금은 별도다.

특히 이번 5기는 앞선 1~4기 운영 과정에서 나온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을 강화했다. 영암에서 생활하면서 지역과 주민, 정착 여건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체류 프로그램에 ‘영암군 지역 탐색 기초 교육 과정’을 새롭게 연계했다.

교육은 총 10시간으로 무화과 수확과 가공품 만들기, 영암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체험, 주택 정원과 마을 가꾸기, 마을 커뮤니티 알아보기, 영암 정착 사례 탐구, 전통 다도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이 영암의 사람과 문화, 농업과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며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영암살래는 2025년 개장 이후 1~3기에 15가구 5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4기 5가구 17명이 영암에서 생활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영암군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1가구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11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선 참가자들이 영암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이번 5기는 실제 생활에 지역탐색 교육을 더한 만큼 영암의 사람과 문화,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영암에서 그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 5기 참가자 5가구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이 영암에서 직접 생활하며 귀농·귀촌과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는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4기 ‘영암살래 두 지역 살아보기’ 참가자들의 체험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 해남, 광복절 앞두고 옥천무궁화축제 개최

14일 지강양한목생가 일원  
총 198종 1500여그루 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옥천면 지강 양한목 생가 일원에서 제9회 옥천 무궁화 축제를 개최한다.

옥천면은 임진왜란의 영웅 충정공 정운장군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지강 양한목 선생의 고향이다. 성산 만의총, 양한목 생가, 정은 충신각, 탑동 5층석탑 등 관련 유적도 산재해 해남 내에서도 총절과 애국의 면모가 남다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강 양한목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돼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선생이 태어난 영신마을에는 순국비와 복원된 생가와 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영신리 생가 일원에는 옥천 무궁화동산이 조성돼 광복절 즈음이면 무궁화 꽃이 만개하면서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옥천 무궁화 동산’은 6월부터 9월까지 쉬지 않고 꽃이 피었다 지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담은 무궁화 198종, 1500여그루가 식재돼 독립운동 유적지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



옥천면 지강 양한목 생가 무궁화 동산.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림청 주최 대한민국 제1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3위인 장려상에 선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오후 4시부터 축제를 시작해 축제장인 무궁화동산에 만발한 아름다운 무궁화를 감상

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먹거리 부스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궁화 화반 꾸미기, 키팅 만들기 같은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여름철 기력 충전엔 ‘완도 전복’이 최고

군, 완도청정마켓서 자숙 전복·전복죽·전복장 등 판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무더위로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복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추천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특산물 쇼룸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활 전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복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완도 전복은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 철분 등 각종 미네랄, 타우린을 함유한 영양 덩어리로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불린다.

전복은 얇게 썰어 회로 먹거나 죽, 구이, 불회,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막상 먹으려면 손질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군이 판매하고 있는 전복 가공식품은

급랭 전 자숙을 시켜 바로 조리가 가능한 ‘자숙 전복’과 찐조림한 맛에 남녀노소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은 ‘전복 절편’, 전복 내장이 듬뿍 들어가 고소하고 녹진한 맛이 일품인 ‘전복죽’ 밀키트, 각종 요리에 활용도가 좋은 ‘전 전복 슬라이스’, 밥반찬으로 좋은 ‘전복장’, 스프의 일종인 ‘전복 차우더’, ‘전복 식혜’, ‘반 건조 전복’ 등이다.

전복 가공식품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가족, 지인들의 건강을 위한 여름철 보양식 또는 선물용으로도 좋다.

완도군 관계자는 “8월 14일 말복에는 완도 전복 요리를 다양하게 즐기며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경



기 침체로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어가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식품기업과 메뉴 개발, 소비 판로 확대 등에 힘쓰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강진, 이동노동자에 폭염 대응 생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배달종사자와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근 사업장을 직접 찾아 생수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관 협력을 통해 강진군 이동노

동자 쉼터에 제공한 생수(500ml) 1500병 가운데 600병을 활용해 추진됐다. 군은 등록된 이동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우선 방문하고, 인근 신규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에 나섰다. 군은 또 택시회사와 강진 버스터미널을 찾아 택시기사와 터미널 이

용객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강진을 배달 종사자 사무실과 성전면 택배 사무실을 방문해 생수를 전달하며 안전운행과 은열 질환 예방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수 배부와 함께 이동노동자 쉼터와 복지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신규 이동노동자 등록을 독려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생수와 다과를 상시 비치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진=이진록 기자 sa432252@

### 초대석



서영호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들다

### 전남의 보물섬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 이달의 이슈



###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S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